

토마스 뮐쩌와 뮐하우젠 종교개혁

崔在昊*

- | | |
|---------------------------|-----------------------|
| I. 머리말 | 1. 신의 영원한 동맹과 영원한 시의회 |
| II. 뮐하우젠의 제상황과 제1·2차 종교개혁 | 2. 뮐쩌와 튀링엔 농민전쟁 |
| III. 뮐쩌와 파이퍼의 제3차 종교개혁 | IV. 맺음말 |

I. 머리말

뮐하우젠(Mülhausen) 종교개혁운동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중세 후기에 시작된 시민 투쟁(Bürgerkämpfe)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도시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상층 귀족 가문에 대항하여 도시빈민을 포함한 시민 세력이 결집하여 대결을 벌인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투쟁은 중세후기 이래 독일 대다수 도시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시민 투쟁은 종교개혁자들의 반(反)교권투쟁과 결합하곤 했다. 뮐하우젠의 경우는 이 시민투쟁이 급진적 종교개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급진적 혁명운동, 즉 시의회를 대체하는 데까지 전개되었다. 더 나아가 이 운동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급기야 중부 독일 농민전쟁의 중심부르까지 되었다.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인물은 파이퍼(H. Peiffer)인데, 1524년 8월 뮐

* 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찌가 영입된 이후 파이퍼와 뮌쩌가 공동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개혁 과정에서 파당의 분열로 양인은 추방되었지만 곧 귀환하여 뮐하우젠의 시정을 좌우하였다. 그 시민투쟁의 열매가 '영원한 시의회'(Ewiger Rat)였다.

뮌쩌는 알슈테트(Allstedt)에서 유감없이 종교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알슈테트 동맹'(Bund)¹⁾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그 의연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정치권력의 반대로 실패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동지들의 규합을 위해 제국도시 뮐하우젠에서 '신의 영원한 동맹'(Ewiger bund Gottes)을 재건하였다. 다시 말해 뮌쩌는 이곳 뮐하우젠에서 이른바 '혁명의 신학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뮐하우젠 종교개혁을 다름에 있어 논쟁은 보통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 및 파당의 분열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 농민전쟁의 실패는 보통 엥겔스가 비판해하듯이 편협한 지역이익에 사로잡힌 반란군에 돌려졌다.²⁾ 이를 계승한 맑스주의자 벤징(Manfred Bensing)에 의하면,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실패 및 튀링엔(Thüringen) 농민전쟁의 실패는 급진적인 뮌쩌와 온건한 파이퍼가 결국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한 데 기인하며 나아가 파이퍼 파당의 계급적 한계와 그로 인한 배신에 기인한다. 즉 뮐하우젠 종교개혁에서 파이퍼는 온건 소시민층의 지도자로 남음으로써 철저한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뮌쩌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자를 뮐하우젠에 남겨둠으로써 뮌쩌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그로 인해 결국 농민전쟁이 실패하였다는 것이다.³⁾ 그러나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 중 파이퍼는 상층 시민을 포함한 온건파에게 두 번이나 추방을 당한다. 또 급진적이라고 소문이 파다한 뮌쩌를 영입한 것도 다름아닌 그였다. 그러므로 파이퍼와 뮌쩌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한 것이 개혁의 실패에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 뮌쩌의 '동맹'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엥겔스가 "동맹이라는 혁명적 세력이 전체 농민 봉기의 길을 예비했다"고 과대평가하고, 이후 학자들이 이를 여러

1) 명칭에 대해서는 최재호, <토마스 뮌쩌와 알슈테트 종교개혁> 《釜大史學》 22, 1998, p.563, 주 2) 참조.

2) F. Engels, *The Peasant War in Germany* (London, 1969), p.129.

3) M. Bensing, "Idee und Praxis des 'Christlichen Verbündnisses' bei Thomas Müntzer," in A. Friesen and H.-J. Goertz, hrsg., *Thomas Müntzer (Wege der Forschung, cdxci)* (Darmstadt, 1978), p.316. 앞으로 "Idee und Praxis"로 줄임.

없이 따름으로써 동맹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뮌징에 의하면,⁴⁾ 뮌처는 동맹을 통해 “계급도 사유재산도 사회적 차별도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뮐하우젠에서는 시민, 농민, 평민 등 세 계층을 망라한 ‘민중 종교개혁’(Volksreformation)⁵⁾을 실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패배 후 모진 고문 끝에 서술된 뮌처의 <자백>(Bekentnis)에 따르면 “뮐하우젠 시의회는 동맹에 참가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단지 평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락할 따름이었다”⁶⁾고 불평한다. 슈타인메쯔(Max Steinmetz)는 뮌처의 종교 이데올로기가 평민들의 바램과는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⁷⁾ 만일 사실이 그러했다면 동맹은 뮌처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뮌처도 동맹을 그다지 전위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동맹을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중추이자 혁명의 전위로 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종래의 이런 논의와 문제점을 토대로 본고는 뮐하우젠 종교개혁의 추이를 통해서 파이프와 뮌처의 역할과 관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뮌처의 ‘영원한 동맹’의 성격, 시기, 구성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뮌처가 농민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그의 주장은 왜 중부독일 평민 대중을 설득시킬 수 없었는지가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뮌처 이상의 의의와 한계 및 모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4) *Ibid.*, pp.323-35.

5) 윌리엄스는 루터, 칼뱅 등의 개혁을 관(官)주도적 종교개혁(Magisterial Reformation)으로 이에 대비하여 뮌처, 칼슈타트(A. Karlstadt) 등의 개혁을 급진적 종교개혁(Radical Reformation)으로 부른다. 윌리엄스는 급진적 종교개혁이란 용어를 종교상의 의미로 근본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의미에서 썼다. G.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1962). 그러나 구소련과 동독 등 맑스주의 사가들은 ‘민중 종교개혁’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터, 칼뱅 등 주류 종교개혁이 상층 계급을 중심으로 한 데 대비하여 뮌처, 칼슈타트 등의 개혁이 정치·사회적 의미에서 하층 계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는 스콧이 이 용어를 보급하였다. Tom Scott, "The 'Volksreformation' of Thomas Müntzer in Allstedt and Mülhausen",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34 (1983), pp.194-213. 앞으로 "Volksreformation"으로 줄임.

6) 본고에서 뮌처 작품과 서간은 프란츠(Günther Franz)의 1968년도 판을 이용하였다. G. Franz, hrsg., *Thomas Müntzer: Schriften und Briefe* (Quellen und Forschungen zur Reformationgeschichte, Bd. 33. Gütersloh, 1968), p.546. 앞으로 MSB로 줄임.

7) Max Steinmetz, "Thomas Müntzer in der Forschung der Gegenwart,"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 23 (1975), p.681.

II. 뮐하우젠의 제상황과 제1·2차 종교개혁

뮐하우젠은 중부 독일 튀링겐의 제국 자유도시로서 에어푸르트(Erfurt) 다음으로 컸다. 그 주민은 8,500명에 육박했으며, 주변 17개 직할 촌락의 신민은 2,500명 이상이나 되었다.⁸⁾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 15세기 이래 하르츠(Harz)를 우회하여 뮐하우젠을 가로질렀던 교역로는 다른 교역로의 개발로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신흥 동부 상업도시 라이프찌히가 부상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세후기 의복산업의 융성으로 이름을 떨쳤던 뮐하우젠은 이제 도시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쇠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웃 에어푸르트와 노르트하우젠(Nordhausen)과 동맹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자위해 왔던 뮐하우젠은 작센 공과 헤센 백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제국도시의 위신은 추락되고 있었다.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15세기 초 길드 내부에서도 투쟁이 강화되었다. 뮐하우젠은 과도적 시의회 체제였다. 그에 따라 32명의 시의원 중 16명은 귀족층, 16명은 장인으로 구성되었다.⁹⁾ 길드 내부의 세력권을 반영하듯 모든 길드에서 시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언제나 자유롭고 정기적인 선거가 행해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의원들은 필요하다면 소수의 상층 계급 가문의 선택으로 대체될 수도 있었다. 뮐하우젠은 정치권력을 놓고 부유층 시민이 장악하고 있는 과도적 시의회와 시민간의 긴장은 증대되었다. 여기서 도시 내의 직인들이 저항의 핵심집단을 형성하였다.¹⁰⁾

한편 도시 중심부(Innerstadt)와 교외(Vorstädte)간에도 불균등은 심화되어 있었다. 당연히 교외는 정치적 권리도 없었다. 뢰셰(Dietrich Lösche)는 교외 인구가 담세의 30%를 부담한데 비해, 부는 겨우 7%를 차지하며, 도시 내 빈곤층은

8) 에버트는 직할 마을을 19개로 쓰고, 괴트조와 에버트는 주민을 7500명으로 쓴다. K. Ebert, *Thomas Müntzer*, 오희천 역, 《토마스 뮐저》 (한국신학연구소, 1994), p.174 ; Hans-Jürgen Goertz, *Thomas Müntzer : Apocalyptic Mystic and Revolutionary*, trans., Jocelyn Jaquiere (Edinburgh, 1993), p.159. 앞으로 Thomas Müntzer로 줄임.

9) *Ibid*

10) Tom Scott, *Thomas Müntzer, Theology and Revolution in the German Reformation* (London/New York, 1989), p.109. 앞으로 Thomas Müntzer로 줄임. 이미 14세기 이래 유럽 도처에서 부유한 길드 직인들이 도시 귀족들에 대하여 빈번히 봉기하였으니 이른바 길드 혁명이다.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길드의 장인들과 도시 귀족들이 제휴하는 등 계급간의 이합집산은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상주인구의 33%. 교외에는 상주인구의 42%. 소규모 차지농이 32%라고 밝혔다.¹¹⁾ 그러므로 도시 내부적으로 계급간의 불만과 더불어 도농 간의 격차는 어느 순간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다.¹²⁾

〈표 1〉 1524-25년 뮐하우젠 시민의 재산별 계층 도표

GM에 의한 과세평가별 계층	전체 시		시 중심부		시 주변부	
	납세 의무자	GM으로 과세평가된 재산	납세 의무자	GM으로 과세평가된 재산	납세 의무자	GM으로 과세평가된 재산
1 250이상	34	17059.5	33	16793.5	1	266
2 101-250	155	22894.5	151	22380.5	4	514
3 51-100	314	22593	294	21145	20	1394
4 11-51	320	7535.5	226	5497	94	2038.5
5 0.5-10	397	1660	253	1052.5	144	607.5
6 재산없음	284		94		190	
	1505	71688.5	1051	66868.5	493	4320

※ 출전: Dietrich Lösche, "Achtmänner, Ewiger Bund Gottes und Ewiger Rat," 에서 재구성.

※ GM은 과세를 위한 평가단위로서 당시 1 GM은 8 Gulden에 해당되었다.

한편 시민과 성직자간의 긴장도 존재하였다. 뮐하우젠의 독일 기사단과 세 수도원들은 도시와 교외에 상당한 영지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열망과 시민의 불만은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1522년 말에서 1523년 초에 이르러 민중들은 뮐하우젠에서 성직자에 대하여 소요를 일으켰고, 심지어 시의회조차 성직자를 공격하였으니 이것이 뮐하우젠 종교개혁의 서막이었다.

종교개혁 운동은 일단 구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11) Dietrich Lösche, "Achtmänner, Ewiger Bund Gottes und Ewiger Rat," *Jahrbuch für Wirtschaftsgeschichte* (Berlin, 1960), p.141.

12) 전통적으로 독일 농민전쟁은 계급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와 비교해서 최근 독일 농민전쟁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반응이라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었다. 개개 집단들은 경제적 변화들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신분하락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였다. 김현수, <1525년 독일 농민봉기에 대한 연구사 검토>, 홍치모 외 공역, 《급진종교개혁사론》 (논터나무, 1993), pp.239-266; 이병린, <농민·농민봉기·농민전쟁의 사회사적 고찰에 관하여> 《史叢》 46 1997, pp.327-365 참조.

진행되었다. 첫째 카톨릭 사제와 계서제의 지위와 특권이 거부되어야 함, 둘째 구교회의 의식(儀式)과 미사를 포함한 예배가 폐지되어야 함, 셋째 교회가 가진 물질적 부와 재산이 몰수되거나 파괴되어야 함. 이에 수반하여 성상파괴, 유물함 및 제단의 파괴, 수도원 제도의 폐지, 수도원 재산의 재분배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루터의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팸플릿에서 도덕적·사회적 개혁을 요구한 데 자극받아 1520년경이 되면 독일 도시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뮐러(Bernd Moeller)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 도시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상은 루터보다 더 강력하였다.¹³⁾

당시 교회는 교회 직위를 자산으로 여기고 자신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평신도와 교권에 의해 후원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후원자의 의지에 반하여 성직자를 바꾸는 것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피해를 본 편에서 정치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성직자를 바꾸는 것은 세속적인 권위의 보호가 강구되어야 했다. 한편 기금으로 세워진 설교권을 가진 도시들은 시의 행정관들이 성직자의 임명을 조종하거나, 교구에서 자신들의 설교자를 선출했다. 종교개혁 초창기에 설교자 임명은 시의회의 호감이나 보호에 달려 있었고,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곳에서는 그 지역 영주의 묵인에 달려있었다. 성직 임명은 교회개혁의 핵심사항이었으며, 교회를 조종해 왔던 교권과 시의회 사이의 오랜 투쟁의 결과였다. 1523년 뉘른베르크(Nürnberg) 제국의회에 공식 칙령에 따르면 루터파가 승인되지 않는 않지만 진실하고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인정되었다.¹⁴⁾ 이런 배경 하에서 종교개혁 운동의 명백한 승리자는 시의회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개혁은 시의원들의 종교개혁이었다.¹⁵⁾ 그러나 교인들은 당파로 분열되었다. 일부는 민중들의 종교개혁으로, 일부는 지배자의 종교개혁으로 되었다.

〈표 2〉 독일 제도시에서 종교개혁의 발발 연대

종교개혁 발발시기	1517.10	1522.3	1522	1522.8	1523.3	1523
도시	비텐베르크	울름	에어푸르트	슈트라스부르크	보름스	뮐하우젠

※ 출전: Euan Cameron, *European Reformation* (Oxford, 1991), p.236에서 재구성.

13) Bernd Moeller, *Imperial Cities and the Reformation* (Durham, 1982), p.88ff.

14) E. Cameron, *European Reformation* (Oxford, 1991), p.236.

15) Steven E. Ozment, *Reformation in the Cities* (New Haven, 1975), p.131.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직자의 타락에 목소리를 같이 하던 시의회와 시민들은 설교자의 초빙을 놓고 분열되었다. 양자는 자연히 성직록과 그 영지 및 공납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 했고, 시민들은 이것으로부터의 완화 내지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은 시정을 장악하고 있던 상층 시민의 시의회에 대한 시민 세력의 투쟁 양상과 결합되었다. 이것은 1523년 파이퍼의 초빙으로 가시화되었다.

이것이 제1차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었다. 뮐하우젠 교회의 성 니콜라우스(Nicolaus) 교구민들은 시청사 앞에서 독일 기사단 단장에게 자기 교회의 비어있는 성직을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¹⁶⁾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힘에 굴복하여 친종교개혁적 성향의 파계 수도승으로서 뮐하우젠 출신의 파이퍼로 알려진 하인리히 슈베르트페거(Heinrich Schwertfeger)의 초빙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종래 뮐하우젠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을 다름에 있어서 뮐징이 파이퍼를 온건 소시민층의 지도자로 상정하였다는 점이다.¹⁷⁾ 그러나 뢰세의 분석 결과는 뮐징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뢰세는 제3·4 그룹을 소시민으로, 제5·6 그룹을 빈민으로 잡았다. 뢰세의 분석에 의하면 성 니콜라우스 교구 지역 주민의 74%는 제4·5 그룹으로 빈민층에 속했다. 그러므로 파이퍼의 지지세력은 하층민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이 자연히 그의 개혁의 향방을 결정하였다.

과연 파이퍼의 개혁은 어떠했는가. 파이퍼는 성 니콜라우스 교회의 설교자로 초빙된 후 세속 복장을 입고 "복음을 설교하고 사제, 수도승, 수녀를 비난"¹⁸⁾하면서 반교권주의를 설파함으로써 대중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제 시민들은 성직자의 방종한 생활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점차로 기사단과 수도원에 대한 파세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이런 급진화에 대해 시의회는 보수적 경향을 노골화하였고, 파이퍼를 추방하려고 하였다. 파이퍼는 제국 칙령에 의거하여 "신의 말

16) Walter Peter Fuchs, hrsg., *Akten zur Geschichte des Bauernkrieges in Mitteleuropa* II (Jena, 1942), p.16f. 앞으로 *AGBM*으로 줄임.

17) M. Bensing, "Idee und Praxis," p.316.

18) Günther Franz, hrsg., *Quellen zur Geschichte des Bauernkrieges* (München, 1963), p.475. 이하 *QGBK*로 줄임.

씀의 편에 서려는 사람과 그 말씀을 지지하는 것을 도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두 손가락을 들어올려야 한다"¹⁹⁾고 선언하며 시의회에 적대적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회에 대하여 1523년 4월 1일 시의회 감독권을 가진 4개 교구에서 각 2명씩 선출된 시민 대표인 소위 '8인 위원회'(die Achtemänner der Gemein)를 구성하였고, '54개 조항'의 불평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다.²⁰⁾ 시의회가 이의 비준을 질질 끌자 시민은 무장봉기하였다. 이를 도화선으로 봉기는 곧 수도원과 종교 집단으로 파급되어 그곳들은 약탈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1523년 7월 시의회는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고 시민들은 기존 헌법의 틀을 유지하되 행정적·사법적 규례의 엄격함을 완화해 줄 것과 종교개혁을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8인 위원회'와 권력을 공유하는 <협약> (Vorschläge)에 동의했다. <협약>은 시헌법의 수정, 시민들의 시행정·재정·재판에의 참여 및 성직료(Pfuntgelt)의 폐지를 골자로 하였다.²¹⁾ 특히 <협약>에는 1) 천주교개혁적 설교자 임명 2) 자유로운 설교권 보장 3) 성직자의 재정 특권 폐지 등 종교개혁적 요구들이 중요시되었다. 여기에 소작료(Zinsschilling)의 개정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수도원을 떠나야 했다. 지주였던 독일 기사단, 교회 및 수도원들은 이 <협약>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협약>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8인 위원회' 위원들조차 시민위원회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앞의 표에서 보듯 적어도 제3·4그룹 출신의 소시민층이었다.²²⁾ 따라서 제5·6그룹으로 분류되는 가난한 민중과 교외 거주민은 대표를 낼 수도 없었고 당연히 그들의 이익은 배제되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실제적으로 없었다.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협약>은 일부 수공업길드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하층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 개혁은 요원하였다. 게다가 시의회는 <협약> 중 세부 항목을 서서히 추진함으로써 반대파를 분열시키려 하였다. 즉 시의회는 종교적 개혁은 시도하였으나 경제적 개혁 즉 소작료의 개정은 늦춤으로써 농민들이 파이퍼의 개혁에 불만을 품게 하였다. 일단 이 계략이 주효하여 시의회는 종교개혁이 제국도시에 위협하다고 선언하며 반(反)파이퍼 세력을 동원하여 8월 말 파이퍼와 그의 조력자인 전 베네딕트파 파계승 히솔리두스(Mattheus Hisolidus)를 추방하였다.

19) *AGBM II*, p.875.

20) Gordon Rupp, *Patterns of Reformation* (London, 1969), p.223.

21) *QGBK*, pp.477~78. 여기에 8인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다.

22) Lösche, "Achtmänner, Ewiger Bund Gottes und Ewiger Rat," p.161.

이를 통해 볼 때 하층 시민 세력은 아직까지는 상층 시민과는 달리 결속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시의회가 보수적 성향을 노골화하자 시민들은 제차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바이마르의 요한 공이 개입하여 1523년 12월에 파이프는 귀환하였다.

귀환 후의 파이프는 대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뮐하우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개혁이다. 그는 설교를 통해 이 국면을 지상에서의 신의 주권의 승리라고 못박았다. 그는 대중들에게 신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시의회와 명령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설교하였다. 그의 교리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루터와 달리 그는 그리스도교 교훈에 의거하여 시민생활을 개선시킬 수단으로서 대중의 저항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9월 중순 교회와 수도원의 공격을 선동하여 도미니쿠스파 교회에 제단 뒤쪽의 장식과 성골함을 부수는 등의 성상파괴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바 뮐하우젠은 뮌쩌가 종교적 십자군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다.²³⁾

뮌쩌는 파이프의 반교권적 소요를 풍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개혁 이상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음이 틀림없다. 알슈테트에서 제후들의 반대에 부딪친 뮌쩌는 제후들의 영향권 밖으로 피하려고 결심하였던 차에, 1524년 4월 초 시의회와 휴회 기간에 성직자가 비었기 때문에 파이프는 뮌쩌를 초청하였고 뮌쩌는 즉각 이에 응하였다.

물론 뮌쩌의 뮐하우젠 초청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1524년 8월 21일자 편지에서 뮌쩌를 거짓 예언자라 부르며, 그가 알슈테트에서처럼 살인, 반란, 피흘림을 일삼으리라고 예상하며 시의회에 뮌쩌를 배척하도록 권고하였다.²⁴⁾ 다음, 요한 공작도 뮌쩌가 알슈테트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말도록 엄중 경고하였다. 훗날 루터는 1525년 4월 11일, 옛 비텐베르크 교수이자 1524년부터 마그데부르크 총감독으로 있던 암스도르프(Nikolas von Amsdorf)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뮌쩌는 뮐하우젠에 귀환하여 파이프와 더불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튀링엔 농민전쟁이 확산될 시기였다. 루터는 "뮌쩌는 뮐하우젠의 왕이요, 황제이지, 단순한 선생이 아니다"라고 평한다.²⁵⁾ 물론 이 말은 과장되었다, 뮌

23) Scott, *Thomas Müntzer*, p.110.

24) D.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99) Vol. 1 p.329. 통칭 Weimar Ausgabe라 함. 앞으로 WA로 줄임.

25) WA, Vol. 3, p.472.

씨는 왕도 황제도 아니었다. 그는 '영원한 시의회'의 고문관이었을 따름이었으며, 파이프와 모든 것을 협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내용에서는 틀리지 않았다. 프란츠(G. Franz)의 지적처럼 뮐하우젠에서 법을 만드는 이는 바로 설교자들이었기 때문이다.²⁶⁾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뮐하우젠의 상황은 파이프를 지지하는 시민세력의 주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와 유보에도 불구하고, 성 니콜라우스, 성 페트루스, 성 게오르크의 3개 뮐하우젠 교외 관구에서 뮐쾨를 요청했다. 뮐쾨는 루터가 자신을 영입하지 못하도록 시의회에 권고한 것보다 일찍 1524년 8월 10일 뮐쾨는 뮐하우젠에서 두번째로 큰 성 마리아 교회의 설교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파이프의 추종자들에게 환영받았다. 뮐쾨는 이전 은급 수혜자인 독일 기사단을 축출하여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고, 설교단에서 공동체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상 제거 및 흠없는 복음의 설교를 약속하였다.²⁷⁾

한편 뮐하우젠의 상황과 파이프와 뮐쾨의 개혁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있다. 에버트에 의하면 도시 내의 문제에 있어서 파이프는 정치적·경제적·사법적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지 선학적·종교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뮐쾨는 뮐하우젠의 정치적 움직임에 종교개혁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초빙되었다.²⁸⁾ 파이프와 뮐쾨의 역할이 분명 달랐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 프리슨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는 뮐쾨와 파이프의 종교상, 신학상의 유사점을 네 가지로 든다. 첫째 양자가 당시 으레 종교개혁자들이 하듯이 "사제, 수도승, 수녀"를 격렬히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했음, 둘째, "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도록 요구하며 그 증표로 두 손가락을 들도록 하였다는 점, 셋째, 시내의 수도원과 사제들을 공격함, 넷째, 파이프의 경우 추방 사유, 뮐쾨의 경우 알슈테트 도주 사유가 "신의 생생한 말씀"을 설교한 데 있었음을 들고 있다.²⁹⁾ 양 사가의 견해는 언뜻 보면 대립되는 듯 하지만 사실상 종합해 보면 파이프 측에서의 뮐쾨 초청은 뮐하우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조력자를 구함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정치적·경제적 부분에 전력하고, 종교적 부분에는 또 다른 믿을 만한 책임자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뮐쾨가 된

26) Günther Franz, *Der Deutsche Bauernkrieg* (12. Auf. Darmstadt, 1984), p.257.

27) Scott, *Thomas Müntzer*, p.143.

28) Ebert, 앞의 책, pp.177~78.

29) Abraham Friesen, *Thomas Müntzer, a Destroyer of the Godless* (Berkeley / Oxford, 1990), pp.221~22. 앞으로 *Thomas Müntzer*로 줄임.

셈이다. 뮌쩌 측에서는 비텐베르크의 신학 즉 '고안된 신앙'(gedichten Glauben)이 도입되지 않아 복음에의 길이 막히지 않음을 간파하고 알슈테트에서처럼 예배식을 개혁한 후 시민들을 '진실한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였다.

파이퍼의 귀환과 이어진 뮌쩌의 설교자로서의 초빙으로 제2차 뮐하우젠 종교개혁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동시에 이는 시의회와 무능함을 노출시켰다. 파이퍼 세력은 여세를 몰아 새 시의회와 새 헌법을 만들었다. 기존 시의회와의 타협물이 <뮐하우젠 조항>(Die Mülhauser Artikel)이었다.³⁰⁾ 뮌쩌 역시 이를 '신의 영원한 동맹'으로 변형하고 <조항>들을 통해 자신의 신학적 관심사를 정치적 사건들에 접목시켰다. 이는 전문(前文)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전문에 "만약 그들의 결정이 신의 말씀에 모순된다면 수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이어 제1조는 "전적으로 새 시의회가 개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을 두려워함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증오와 전제정치는 끝나야 한다. 악행자와 이것을 허용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는 동일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하 조항들은 새 시의회가 '신의 명령 및 성서'에 따라 통치할 것과 새 시의원들이 통치하는 법을 다루었다.³¹⁾

30) <뮐하우젠 조항>은 앞으로 <조항>으로 줄임. 원문은 A. Laube & H. W. Seiffert, et al. hrsg., *Flugschriften der Bauernkriegszeit* (2nd ed., Berlin, 1975), pp.80~82에 있음. 앞으로 FDBK로 줄임. 박양식, 《종교개혁 시대의 천년왕국 운동》,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122~123 참조.

31) 나머지 조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는 필자의 설명임.

제2조 : 성서와 기록한 신의 말씀의 정의의 표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판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는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제3조 : 시의회와 공적 임기가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자만하지 않고 타인 위에 영주처럼 군림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임기를 폐지하는 이유는 시민전체가 시정의 직무수행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며, 방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전체에 의해서 해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제4조 : 사형을 집행하여 시의회가 정의롭게 행하며 불의를 징벌해야 한다.

제5조 : 시의원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시의원직의 임명을 강요받거나 의지가 없는 자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 탐욕, 착복,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곤궁에 빠진 사람들은 돌보아야 한다. 이것은 소유에 대해 탐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7조 : 새로운 시 인장(印章)을 사용하여 모든 기만과 거짓이 방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신의 명예와 도시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전(前)시장이었던 로데만(Sebastian Rodemann)이 인장을 가지고 랑엔잘짜르 도망쳤기 때문이다).

제8조 : (구시의회) 사람들이 복지를 행사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않는다면 우리는

<조항>은 종교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왜냐하면 알슈테트에서 뮌찌는 영주들에게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 <영주 앞 설교>³²⁾에서 새로운 엘리야, 다니엘, 세례 요한 따위의 종교상의 예언적 지도자라고 자신을 부단히 강조하였다. 하지만 <조항>에서는 그런 언급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뮐하우젠에서는 기존 지배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를 굴복시키기 위해 민중을 끌어들이는 요령으로 뮌찌와 파이퍼의 파당이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항>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동이 전적으로 신의 명령과 정의로 측정되고 심사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신과 민중에게 해가 되는 것인가? 만약 우리의 행동이 민중에 의해 승인되고 신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면, 혹 신이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민중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는 신을 선택할 것이다.³³⁾

위에서 모든 기존 조항들은, 그것이 제국법이든, 휴회기간의 것이든, 그것들이 성서와 일치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급진적이다. 그러므로 <조항>의 원리는 농민전쟁의 다른 문서들과 같이 신의 공평성이다.³⁴⁾ 농민전쟁문서에서는 '로마법'에 대한 '신의 법'의 우위만이 강조되는데 비해, 뮌찌에게는 새로운 법 원리뿐 아니라 원리에 따른 들의 관찰도 중요시되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그들의 악행을 지상에 열거할 것이다. 그들이 20년 동안 악행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도시를 속였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명백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모든 사람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제9조 : 신의 말씀에 따라 정착되지 않는다면 신의 의와 공평이 최우선시되고, 기판적인 권력과 이기주의를 내쫓기 위해 어떤 동의도 할 필요가 없다.

제10조 : 새 시의회를 거부한다면 옹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11조 : 망설임이나 지체없이 신의 말씀에 일치시켜 행동할 것이다.

32) 여기에 대해서는 MSB, pp.241-264 및 최재호, <토마스 뮌찌의 선민사상> 《釜大史學》 21, 1997, p.299 주 68) 참조.

33) FDBK, p.82.

34) 농민전쟁 2대 문서로 꼽히는 <12개조>와 <슈바르츠발트 농민의 조항편지> (Der Artikelbrief der Schwarzwälder Bauern)에서는 '그리스도교 전체의 이익'으로 여러 차례 표현되고 있다. 위 문서의 원문은 FDBK, pp.26-34, pp.110-111에 각각 실려 있음.

교 선민 공동체'이다. 뮌처가 <조항>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영향은 언어나 형식에서 드러난다. 거기에는 뮐하우젠을 순수한 그리스도교 선민 공동체로 변형할 것이라는 혁명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³⁵⁾ <조항>은 이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조항>의 원리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뮐하우젠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9월 22일의 편지이다. 엘리거는 이 편지와 <조항>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³⁶⁾ 주목할 사실은 편지의 수신자가 시의회도, 교구도 아닌 교인들 즉 선민들이었다. 그는 뮐하우젠 공동체에게 "신의 말씀의 지혜를 배반하지 말고 신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능한 신은 분명히 당신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당국의 오류와 범죄와 불법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얼마나 수 많은 방법으로 당신들을 타락시켰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류들을 천하에 알릴 때입니다.³⁷⁾

이어서 뮌처는 뮐하우젠 내의 여러 파당간의 분열을 극복하기를 신의 말씀에 의거하여 호소한다. 그는 시의원들이 고질을 계속한다면 폭력을 사용할 것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신 그는 민중들에게 모든 세상이 그 의원들을 비난한다고 공개적으로 알려 신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 때야만 민중들은 자신들이 신의 오랜 고통을 감수한 선민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 인쇄하여 공개된 것을 볼 때 당신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백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보라 이 경건한 백성들은 지금껏 너무나도 인내해 왔다. 그들은 신의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백성들은 당신들을 선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라 이것이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즉 위대한 백성들이 그것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신을 위해서 어떤 위험에도

35) 스캇은 <조항>의 첫 두 조항만은 뮌처가 만든 것으로 본다. 뮌처는 자신의 글을 성서 주석으로 가득 채우곤 했다. Scott, *Thomas Müntzer*, p.117.

36) Walter Elliger, *Thomas Müntzer, Leben und Werk* (Göttingen, 1975), p.581f. 앞으로 *Thomas Müntzer*로 줄임.

37) MSB, p.447.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곧 분별있는 백성의 표이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할 것이며 악마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으로서 당신들에게 말할 것입니다.³⁸⁾

이 편지에서 뮌처는 특히 평민의 권리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³⁹⁾ 그가 인용하고 있는 성서는 신명기로서 신의 계명 즉 신의 법에 관해 다루고 있다. 당국의 월권은 그 징조이다. 신은 이 징조를 선민들을 위해 보여주셨다. 변절자들과 선민들 간에 선이 그어졌다. 평민은 단지 진리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들의 대적은 신의 법에 대항하는 당국의 월권이다.

그러나 신의 공평성에 기초하였을지라도 <조항>은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곧 당시의 뮌처와 파이퍼 개혁의 한계이기도 했다. <조항>은 도시 주민과 직공들을 위한 것이었지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조항> 어디에도 농민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농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상 <조항>의 모두(冒頭)에 “성 니콜라우스, 성 게오르크, 성 파가레타 회중을 포함하여 성 야콥의 아마포 직조공과 많은 다른 시내의 수공업자와 함께”⁴⁰⁾라고 시작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조항>을 만든 자들은 농민을 배제하는 계급적 한계를 보였다. 엘리거는 <조항> 작성자 중에는 직공길드의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논증했다.⁴¹⁾ 뮐하우젠 직할 촌락의 농민들은 이 조항들에 만족할 수 없었다. 위의 편지에서도 뮌처는 도시 내 파당의 극복을 열렬히 호소하지만 농민의 불평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 뮐하우젠에 온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 뮌처의 입장에서는 주변 상황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개혁에 적대적일 리가 없었던 뮐하우젠 농민은 9월 24일 시의회에 저항하는데 합류하지 않았다. 파이퍼와 뮌처 진영은 농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9월 24일 뮐하우젠 산하 촌락의 농민들은 도시민들이 비그리스도교적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새로운 영주를 모실 것이라고 시위를 벌였다. 결국 농민들에게 뮌처의 설득은 공허한 말로만 비춰졌다.

여기에 대해 성 니콜라우스 교구민이 십자가를 들고 도시 주위를 돌며 열정

38) MSB, p.448.

39) Ebert, 앞의 책, p.181.

40) Elliger, *Thomas Müntzer*, p.581. 이들 세 교구는 뮐하우젠 교외에 있었다. 성 니콜라우스교회는 파이퍼가 설교자로 있었고, 성 야콥교회는 시내에 있었다.

41) *Ibid.*, pp.581~83.

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에 교외도 모여야 한다고 선언하며 행진을 벌였다. 9월 소요시 볼슈테트(Bollstedt) 촌락 화재는 세력 규합에 반대하는 농민에게 반대하는 보복이었다. 폭동과 방화가 계속되었고 시의회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촌락에서 증원군을 불러들여 9월 27일 뮌저와 파이퍼를 추방하였다.

요컨대 파이퍼를 지지한 온건 중간 시민계층은 1523년 승리를 획득하여 '8인 위원회'를 통로로 자신들의 몫과 성직자의 폐습개혁을 요구한 데 그쳤다. 시민 운동의 진행으로 '8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온건-시민층이 파이퍼로부터 이탈하여 보수화하자 급진파는 파이퍼의 편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1524년 말 뮌저의 도착이 말하듯 일부 지지계층이 떨어져나가고 빈민 대중 속에 특히 교외에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파이퍼는 급진화하였다.⁴²⁾ 그러나 파이퍼는 도시교외의 주민과 빈민을 지지기반으로 하였으나 여전히 농민과 결합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파이퍼측의 목적은 시당국에 대항하여 공동 투쟁이 필요하였으나 뮐하우젠 농민은 파이퍼가 12월 중순경 귀환하여 교외로 실제 원정을 개시하기까지는 급진파에 쉽게 합류하지는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9월 위기에서 파이퍼와 뮌저파당의 실패는 농민의 보수화가 아니라 도시민의 보수화에 기인하였다. 그러므로 파이퍼는 온건 시민층의 대표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는 급진적이었으나 소극적으로는 시당국의 장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기 위해서 온건 노선을 전략적으로 취했다. 파이퍼의 추방은 단지 그의 노력이 한계를 보인 것이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파이퍼와 뮌저는 종래 평가되듯이 서로 대립한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었다. 다시 말해 뮌저의 뮐하우젠 초청 자체가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급진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고 파이퍼의 종교개혁과 뮌저의 종교개혁은 연속선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뮐하우젠 종교개혁은 초기 국면에서 개혁적 성향의 교인과 도시의 개혁적 정치가들이 제휴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개과정에서 상·하층민의 대립구도로 전환되었다. 시의회가 상층 시민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성 니콜라우스 교구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도시 내 투쟁에서 하층민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⁴³⁾ 파이퍼의 등장과 지도로 민중의 저항은 급진적으로 추진될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뮌저의 뮐하우젠 종교개혁의 첫 국면은 시민 운동의 분열과 그 지도자들인 뮌저와 파이퍼의 민중 결집 실패로 인해 좌절되었다. 사실 뮌저는 <조항>

42) Scott, "Volksreformation," pp.199~201.

43) Rupp, *Patterns of Reformation*. p.223.

에서 보듯 자신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종교적 이상을 구현시키려고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뮐하우젠 사람들은 무엇보다 뮐쩌의 신학적 관심사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뮐쩌의 지지기반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뮐쩌는 알슈테트에 이어서 쓰라린 잔을 다시금 들어야 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혁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계기도 되었다. 즉 종교개혁의 일차적 대상은 기존 교권과 정치권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민중도 그 대상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다음의 그의 개혁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III. 뮐쩌와 파이프의 제3차 종교개혁

1. 신의 영원한 동맹과 영원한 시의회

뮐쩌와 파이프의 추방 후 뮐하우젠의 정치상황은 변했다. 일부 성직자가 파이프를 지지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시의회와 대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8인 위원회' 역시 상층 시민에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1524년 12월 파이프가, 이듬해 2월 뮐쩌도 귀환했다. 뮐쩌는 앞서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변혁을 목표로 '영원한 동맹'을 재조직하였고, 시민세력은 '영원한 시의회'를 구성하였다.

뮐쩌의 관점에서 자신의 운동에 두 가지 주요한 위협이 있었다.⁴⁴⁾ 하나는 내부의 것으로서, 물질 소유에 계속적으로 집착하며, 성령과는 무관한 도시민들의 분열이며, 다른 하나는 작센 공 게오르크에 의해 점증하는 외적 위협이었다. 독일 남서부에서 시작한 농민봉기가 서서히 튀링엔으로 번져올 것을 염려한 작센의 영주들은 종교개혁 문제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군사적으로 공동 전선을 펼 태세였다. 카톨릭을 절대적으로 신봉한 작센의 게오르크와 친종교개혁 성향의 헤센의 필립은 뮐하우젠을 공격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 군사적 위협을 뮐쩌는 중립론적 관점에서 파악했다. 이제 파이프와 뮐쩌에게는 도시 내부의 통일된 정치적 노선이 급선무였다. 그들은 은건파들을 밀어부쳤고 그

44) Abraham Friesen, *Thomas Müntzer, a Destroyer of the Godless* (Berkeley/ Oxford, 1990), p.233.

결과 3월 17일 뮌쩌의 교회인 성 마리아 교회에 시민이 소집되었고 최종적으로 투표권자 2/3의 지지로 구 의회가 해체되고 '영원한 시의회'가 구성되었다. 새 의회는 4명은 전직 시의원이고 '8인 위원회'로부터 4명, 시 중심부 4곳에서 각 2명 합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로 미루어 새 시의회는 재산상태와 직업면에서 다양한 계층의 타협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영원한 시의회'라 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그러나 빈민층의 대표는 전무하였음은 불안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파이프와 뮌쩌의 파당이 뮐하우젠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다.⁴⁶⁾ 새로운 시의회가 파이프와 뮌쩌의 추종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새 지도부는 협상을 통해 공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계층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⁴⁷⁾ 즉 그들은 소부르주아지와 중간 부르주아지 중 재산 소유자들이었다. 그러나 교외 거주자는 물론 촌락거주 농민들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계층들도 변화를 바랐기에 일단 '영원한 시의회'에 충성을 맹약했고 서약의 지지자는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를 정치적 평등의 첫 걸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한 민주정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선거권이 결코 제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신 새 시의회는 으레 그렇듯 투표권을 가진 도시민(거주민의 절반 정도)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시의회'는 뮌쩌가 주도한 '영원한 동맹'의 전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파이프와 뮌쩌의 영향력이 '영원한 시의회'에 직접적으로 미치지도 못했다. 그렇더라도 빈민층 위주의 '영원한 동맹'에 정신적·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의 지원은 가능했을 것이다. '영원한 시의회'는 뮌쩌의 '영원한 동맹'의 집행 수족도, 두 설교자의 도구도 아니었다. 오히려 뮐하우젠에서 구 시의회와 점증하는 개혁 성향의 시민간의 알력을 완충하는 정치적·사회적·종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요컨대 '영원한 시의회'는 종교개혁의 문제와 뒤엉킨 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결과물로서, 개혁 성향을 가진 다수의 승리를 반영한다. 이제 그 과정은 종교개

45) *QGBK*, pp.497~501. 농민전쟁이 진압된 후의 심문에 의하면, 선거가 강압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46) 맑스주의 사가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주장을 따른다. 특히 뮌칭은 영원한 시의회가 뮌쩌의 혁명적 프로그램의 대리인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본다. Bensing, *Müntzer*, p.78.

47) 에버트는 '영원한 시의회'에 모든 정치적 사회적 집단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반대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오류이다. Ebert, 앞의 책, p.209.

혁을 내적으로 정착시키고 외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즉 교회재산을 재분배하고 십일세와 지대의 보류를 증지함에 대한 저항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정치적·영적 지도력은 여전히 제도권에 남았다. 이는 공적 갈등 즉 소요가 줄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이는 뮌처의 설교와 선동에 자유로운 고평을 허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니다. 그 원천은 지상에 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이상적 설교로 인해 언젠가 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뮌처는 이미 알슈테트에서 '선민동맹'을 만들었다. 뮌처는 1524년 6월 25일 알슈테트 재정관 짜이스(H. Zeiss)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복음의 방어와 우상 파괴를 위해"⁴⁸⁾서라고 동맹의 목적을 밝혔다. 동맹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는 성서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며 곧 우상과 우상 숭배 장소의 파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⁴⁹⁾ 그러나 알슈테트에서 동맹은 영주들의 반대로 벽에 부닥쳤다. 여기서 뮌처는 정치적 변혁없는 종교개혁은 껍데기임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게다가 뮌처의 뮐하우젠 첫 번 체제에서의 추방은 이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므로 뮌처는 알슈테트에서 좌절되었던 것을 뮐하우젠에서 시도하고 있다. 즉 알슈테트에서는 동맹이 방어적 성격을 지녔지만 이 즈음에 이르면 동맹은 이전과는 확연히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점증하고, 또 뮌처 자신 종말의 때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뀐다 할지언정 뮌처의 원래 목표인 종교개혁적 이상은 일관되게 추구되고 있다. 사실상 동맹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 날짜조차 불분명하다. 그러나 동맹원의 명부는 남아있으며 200명 남짓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에 농민은 극소수를 차지하며 다수는 시내 거주자였다. 그들은 빈민이나 무산자였다. 파이프는 '군목'으로 등록되어 동맹은 군사적 성격을 띠었던 것 같다.⁵⁰⁾ 또 군대 서열도 기록한다. 이하 동맹의 설립시기와 구성원의 성격 및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동맹의 설립 시기에 관하여 1524년 9월설과 1525년 4월설이 제기된다. 뮌처는 알슈테트 동맹의 연장하에 뮐하우젠에서 세속·종교 당국에 반대하여 사회·종

48) MSB, pp.421~23.

49) 최재호, <토마스 뮌처와 알슈테트 종교개혁>, pp.578~581.

50) Ulrich Bubenheimer, "Thomas Müntzer: Prediger-Prophet-Heerführer," in Günther Scholz, Hrsg., *Thomas Müntzer (vor 1491-1525): Prediger-Prophet-Bauernkriegsführer* (Böblingen, 1990), p.46.

교적 혁명을 무력으로 달성하려는 것이었다.⁵¹⁾ 그것의 기원은 1524년 9월 위기와 일치하여 나타난다. 뮌쩌는 <협약>을 어긴 시의회를 협박하며 1524년 9월 아이케(Eiche)로 출정했다.⁵²⁾ 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교 동맹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즉 9월 위기와 관련하여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진행 중에 반대 세력이 분리되면서 빈민 계급을 주축으로 하여 뮌쩌가 '영원한 동맹'을 결성하였다는 것이다. 뮌칭은 뮌쩌가 활동 초기부터 혁명가였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엘리거는 이를 반대한다. 1525년 4월까지 '영원한 동맹'에 관한 언급이 없다.⁵³⁾ 그 조직은 1525년 4월 경 잘짜 판리 베르렙쉬(Berlpsch)가 동맹에 관한 언급 없이 아이케 출정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나타난다. 이는 '영원한 동맹'이 훨씬 뒤에 결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⁵⁴⁾ 즉 동맹은 뮌쩌측에서 농민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위하기 위해 군사적 조직을 갖추어 우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뮌쩌는 계속 신학을 고집하는 셈이다. 스카트는 동맹 명단을 조사하여 9월설을 반박한다.⁵⁵⁾ 우선 그것은 복사본이어서 작성 당시를 말하고 있지 않다. 둘째, 추방된 것으로 기술된 세 명 동맹원의 이름이 동일하게 한 사람의 손으로 씌여졌다. 게다가 등재된 구성원인 린제(Hans Linse)라는 뮐하우젠 최고의 부자는 도망간 시장 로데만과 베티히(Bettich)를 대신하여 새로이 지명된 시장 중의 한 사람이다. 바로 다음 주 그는 뮌쩌와 파이퍼의 추방을 주재하는 데 관여했다. 그런 그가 9월 결성된 동맹의 창설자일 수는 없다. 스카트에 의하면 9월 결성설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는 출정 3일 후에 뮐하우젠 교회에 보낸 뮌쩌 자신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그는 편지에서 대규모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동맹'은 이듬해 봄 새롭게 선출된 '영원한 시의회'를 통해 뮌쩌의 종말론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의 주장들은 다음의 약점을 갖는다. 뮌칭의 경우 알슈테트 동맹이 비밀동맹으로서 군사적 기초를 가졌다고 한다. 그 근거로 말러바하 예배당 방화사건을 든다. 그러나 앞선 논문에서 필자가 밝혔듯이 말러바하 방화사건은 뮌쩌의

51) Bensing, "Idee und Praxis," pp.317~19.

52) Bensing, "Idee und Praxis," pp. 317~19.

53) Elliger, *Thomas Müntzer*, p.691.

54) *Ibid.*, p.577, 주 39) ; Scott, "Volksreformation," p.202.

55) Scott, *Thomas Müntzer*, pp.115~117.

극소수 추종자들의 우발적이고 일종의 광신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 아니면 뮌쩌의 종교개혁을 탄압하려는 카톨릭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⁵⁶⁾ 뮌쩌는 군사적 혹은 폭력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사실 알슈테트 종교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영주들을 자극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뮌쩌는 알슈테트 동맹과 뮐하우젠 동맹이 갖는 성격의 차이를 간파했다. 반면 엘리거나 스캇의 주장은 알슈테트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뮌쩌가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 하였으리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요컨대 동맹은 뮐하우젠으로 온 직후인 1524년 9월 위기와 관련하여 만들어졌으나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가 이듬해 4월 농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재결성되었다.

다음으로 뮌쩌의 동맹의 추종세력은 누구였던가? '영원한 신의 동맹'의 구성원은 도시와 시 교외의 빈자와 평민파에서 충원되었다. 뮐하우젠에서 동맹은 시초부터 방어동맹 이상의 것이었다. 뮌쩌는 이 동맹을 참신자의 전위로서 간주했다. 동맹의 조직은 군사적이었다. 동맹참가를 촉구하기 위해 무지개가 그려진 백기(白旗)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verbum Domini manet in aeternum)라는 문구를 써서 설교단 아래에 놓았다. 여기서 뮌쩌는 복음에 확고히 헌신하는 민중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백 명 이상이 뮌쩌와 파이프의 반대당의 진영인 펠크타(Felchta) 문 밖에서 등록하였다.⁵⁷⁾ 구성원들의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명부에는 219명이 등록되었다. 이것은 아이케 출정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적 일치한다. 또 잘짜 판리 베를렙쉬는 4월 17일 상황을 기록하여 게오르크 공에게 보고하였다. 4월 22일 기록은 "뮐하우젠의 지지자 뿐아니라 주변 지역을 규합하였고 깃발을 사용한다. 이 주변 지역의 평민은 그와 함께 봉기할 것이며, 신의 도움이 없다면 그런 다수를 제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명하였다. 4월 24일에 이르러 동맹에 가입한 수는 약 2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1520년 이래 뮌쩌의 동맹에 대한 구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동맹은 복음을 위하는 자로서 잠재적으로 성령을 소유한 자와 경건한 지배자로 구성되는 선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동맹은 성령으로 충만된 '신의 친구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맹에 참여를 거절하는 자

56) 최재호, 앞의 글, pp.575~76.

57) 영원한 시의회 의원인 투셔러(Claus Tuchsherer)의 자백이다. Manfred Bensing, *Thomas Müntzer und der Thüringer Aufstand*, (Berlin, 1966), p.67. 앞으로 Müntzer로 줄임.

와 실제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멸절되어야 한다.⁵⁸⁾ 그러나 그는 동맹이 선민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악한과 부랑자가 동맹을 남용하기 위해 가입할 것을 예상했다. “그들은 단지 이기적·물질적 목적을 위해 동맹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경건한 자가 동맹을 만들 때, 사악한 자들은 그 안에 또한 있을 것이다.”⁵⁹⁾ 여러 번 그는 성령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앉으려는 많은 수에 대해 불평을 토로했다. 일찍이 <프라하 선언>(Das Prager Manifest)에서 그가 지적했듯이, 선민 모임에는 저주받은 자가 같이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실상 선민을 삼킬 것이라고까지 예견했다.⁶⁰⁾

뮐하우젠에서도 여전히 뮌쩌는 동맹회원들에게 자신의 신비적인 ‘진실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¹⁾ 알슈테트 주민에게 보내는 4월 26일 서신에서 이 주장은 강조되었다. 뮌쩌는 설교단에서 회중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즉 은, 보석 및 동전을 제거하십시오. ... 당신들이 이것을 사랑하는 한 신의 영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⁶²⁾라고 경고했다. 또 작센 제후들에게 동맹가입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편지에서 뮌쩌가 사회혁명을 위한 도구로서 동맹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즉 “동맹을 통해 폭군에게 지급하는 지대 따위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⁶³⁾ 뮌쩌는 빈자와 부자 모두 육체적 일 즉 부에 대한 사랑과 필요를 염려하여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음을 잘 알았다. 그러므로 <조항> 제 6조에서 “곤궁에 빠진 사람들은 돌보아야 한다. 이것은 소유에 대해 탐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도록 위해서이다.”⁶⁴⁾라고 한데서 보이듯이 그는 불평등을 비판하고 분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부의 분배는 영혼 구원에 이바지하는 것일지는 모른다. 뮌쩌의 목표가 절대적 신의 법과 절대적 자연법을 동일시했다든지, 그래서 ‘자백’에서 빈자도 부자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했다⁶⁵⁾든지, 심지어 뮌쩌의

58) 만스펠트공(Ernst von Mansfeld)에게 1525년 5월 12일에 보내는 뮌쩌의 편지를 참조하라. 이 마지막 위협적인 편지는 허풍이 아니라 뮌쩌사상의 핵심이다. *MSB*, pp.469~470.

59) *Ibid.*, p.423.

60) *Ibid.*, p.501.

61) James M. Stayer, *Anabaptist and Sword* (Lawrence, 1973), pp.88~90.

62) Scott, *Thomas Müntzer*, p.143.

63) *MSB*, p.422.

64) *FDBK*, p.81.

이상에는 국가, 적극적 법, 소유, 강제가 폐지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⁶⁵⁾ 지나친 것이다.

어쨌든 뮌쩌의 '진실한 신앙'은 민중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지기는커녕 뮌쩌가 현실에게 점점 멀어지는 불행한 결과의 징조였다. 다시 말해 뮌쩌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신학사상은 밀하우젠 시민들과 거리가 있었다. 시민들은 반응이 없었다. 이는 뮌쩌가 동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영원한 시의회'의 구성에 앞서 뮌쩌와 파이피는 외부로부터의 영주들의 간섭 위협에 대항하여 우선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선 교회 재산을 <협정>에 의거하여 몰수하였고 곧 이어 민중 무장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뮌쩌가 민중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은 다음의 예로써 입증된다. 우선 1525년 3월 9일 시민군 소집에서 수백 명도 채 모이지 않았다. 둘째, 민병대장은 설교자 뮌쩌가 요구한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근간으로 하는 충성서약을 거부하였다. 뮌쩌의 추종자들의 목표는 물질적 약탈이지, 성령을 통한 자기 희생이 아니었음이 인근 수도원과 성채를 공격하는 중에 나타났다. 결국 1520년 이래로 사역해 왔던 영적 혁명과는 달리 뮌쩌는 루터의 비난처럼 밀하우젠에서 사회의 파괴자로서 연루되었다.

뮌쩌와 농민은 신학상에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밀하우젠 연대기는 1525년 4월 25일 성 마리아 교회에서 모든 민중 앞에서 행해진 논쟁을 전해준다.⁶⁷⁾ 이 때는 이미 루터의 신학이 밀하우젠에도 퍼져있었다. 따라서 루터파 농민과 뮌쩌는 신약성서 사도행전 10장의 로마제국 백인(百人)대장 코넬리우스의 질문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초점은 원시 교회시대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이다. 루터에게 성령은 말씀을 떠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성서 구절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민은 정확히 이 주제와 이 특수 구절에 관해서 뮌쩌에게 도전하였다.⁶⁸⁾ 여기에 대해 뮌쩌는 신께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바로 "그때 비로소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은 뮌쩌에게 매우 중요했다. 뮌쩌에게 추종자들이 단지 성서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성령이 의식적으로 거주하는 것,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이제껏 뮌쩌의 목표였다. 요컨대 이

65) *MSB*, p.548.

66) Carl Hinrichs, *Luther und Müntzer* (Berlin, 1962), pp.174~75.

67) *QGBK*, p.498.

68) 프리슨은 이 점에서 농민을 루터파라고 단정한다. Friesen, *Thomas Müntzer*, p.237.

사건에서 보듯 뮌쩌는 경제적인 면 외에도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조차 전체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뮌쩌의 지도력은 이미 외부적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잘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christliche gemeyn)는 “평화를 위해 자신들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비적 말을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였다.⁶⁹⁾ 농민전쟁이 진압된 후 1529년 10월 15일 잘짜 본토박이인 쟈글러(Hans Ziegler)는 반도(叛徒)들은 시의회에 <12개조>의 수용을 요구했으며, 신의 말씀이 선제후의 땅에서처럼 행해질 것을 설교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자백했다. 분명 이것은 뮌쩌의 해석보다는 루터의 해석을 참고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당시 튀링엔 지방에 뮌쩌와 루터의 차이는 비교적 잘 알려졌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잘짜 공동체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잘짜 봉기를 사용하려는 뮌쩌측과 파이퍼측에 대해 분명히 거부한 것이다. 분명 그들은 뮌쩌와 파이퍼도 혁명의 무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처럼 튀링엔에서조차도 뮌쩌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⁷⁰⁾

요컨대 뮌쩌의 뮐하우젠에서의 동맹은 알슈테트에서의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이상과 연장선에 있다. 이것은 1524년 9월 조직되었으나 대중들을 결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1525년 4월 농민전쟁의 급류와 함께 방어적 성격을 넘어 군사적으로 무장된 공격적 성격을 갖추어 기능을 하였다. 뮐하우젠 시민과 농민을 결집하는 데 있어 뮌쩌의 이상은 반대에 부딪혔다. 뮌쩌의 동맹은 법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었다. 뮌쩌에게 불평등과 부정 부패 같은 문제들은 부차적이었다. 그에게는 신의 뜻이 실현되는 진실한 신앙을 기초로 모인 선민들의 공동체 건설이 주된 목표였다.

2. 뮌쩌와 튀링엔 농민전쟁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농민전쟁 서지학에서 농민전쟁은 사회적으로 농민과 심지어 촌락민을 넘어 광부와 도시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1525년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농민만의 것은 아니었다. 블리클레(P. Blikle)는 장원 밖의 모든 평민의 운동으로 농민전쟁을 제시하였다.⁷¹⁾ 그러나

69) MSB, p.453.

70) Friesen, *Thomas Müntzer*, p.236.

71) P. Blikle, *The Revolution of 1525* (Baltimore, 1981), p.150.

사회·경제적 관심의 차이로 인해 1525년의 반란에서 중간 직인 공동체와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 대도시와 타운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본질적으로 장벽을 쌓았다.⁷²⁾ 농민전쟁은 광부, 촌락 직인, 농민과 함께 소도시 시민도 포함한다.

1525년 4월 24일은 뮌저를 포함한 혁명가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랑엔잘짜(Langensalza)에서 평민이 봉기하였다. 이는 튀링엔 농민전쟁의 시작이요, 뮌저에게 투쟁이 결정적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랑엔잘짜 봉기를 지원하기 위해 400·500명이 도시 문 앞에서 나타나 지지를 표명했다. 뮌저는 이전의 동지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 때에는 이미 알슈테트의 추종자들은 라이카르트(Hans Reichart)의 지도하에 비밀 혁명 동맹을 맺었고, 30명은 복음을 방어하고 수도승을 제거하리라고 맹세했다.⁷³⁾ 뮌저는 3월 전반에도 알슈테트 추종자에게 편지하기를 "만약 과거의 실패를 자백한다면 신앙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⁷⁴⁾ 여기서 행동은 영주에게 대항을 의미하며, 그가 알슈테트 개혁 당시 실패의 원인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1524년 결성된 동맹은 1525년이 되면 무력을 수반하게 되며, 밀하우젠 종교개혁운동을 더욱 급진적이 되게 하였다. 그는 4월에 알슈테트에 다시 편지하면서 무력 사용을 촉구한다.

아이히스펠트의 농민들은 영주에 대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곧 이어 그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건이 당신들에게 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 편지를 광부들에게 전해주시시오.⁷⁵⁾

위의 광부들이 만스펠트 광부임을 분명하다. 그는 인쇄물을 찍고 알슈테트에 사람을 급파했다. 뮌저는 불신자와 곧 싸울 듯이 보였다. 다음 4주 동안 남독에서 농민반란이 발발하고 튀링엔 변경 헤센과 프랑켄 곧 북동으로 퍼졌다. 심판

72) James M. Stayer, *The German Peasant's War and Anabaptist Community of Goods* (Montreal & Kingston/ London, 1991), pp.4~7.

73) *MSB*, pp.454~56.

74) *Ibid.*, pp.450~51.

75) "뮌저가 알슈테트주민에게" 1525. 4. 26/27. *MSB*, pp.454~56. 문구를 보아 알슈테트 주민 모두가 아니라 이전의 그리스도교 동맹의 중심인물에게 보낸 듯하다. 그들의 이름은 뮌저의 <자백>에 있는 이름과 일치한다. *MSB*, pp.545~48. 또 1525년 12월 크룸페(Barthel Krumpe)와 몇몇의 청원을 참조하라. 그들은 만스펠트인에게 그의 편지를 전달했다. *AGBM II*, pp.756~57.

의 날이 임박했음을 확신한 뮌쩌는 평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도록 고무시켰다. 자매 도시 노르트하우젠에 있던 지지자 일부는 '영원한 시의회'의 구성에 환호를 보냈다.⁷⁶⁾ 4월말 경 서부 튀링엔 반란과 랑엔잘자의 도시반란이 급속도로 뒤따랐고 그 지도자들은 뮐하우젠에 신속히 도움을 호소하였다. 뮌쩌와 파이퍼는 '영원한 동맹'의 백기 아래 4백 명의 추종자와 함께 잘짜(Salza)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폴켄로다(Volkenroda) 수도원을 파괴하고, 성상을 부수고 장원의 문서와 기록을 불태웠다.⁷⁷⁾ 이에 뮐하우젠의 두 부촌인 괴르마르(Görmar)와 암메른(Ammern)은 카톨릭 사제를 추방하고 복음적 설교가를 초빙하였고 '영원한 동맹'에 지지를 표명하였다.⁷⁸⁾ 이로 볼 때 농민들에 대한 평민의 호소는 후원 대 반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심지어 하층계급에서조차 보인다. 뮌쩌는 이 시기에 이르러 군대를 지휘하며 북부 튀링엔 반란군과 결합하기 위해 뮐하우젠·튀링엔 군대를 결집하려고 하였다.⁷⁹⁾

4월말 프랑켄하우젠 반란은 5000명 농민과 도시민이 참가하여 총체적 반란이 되었다. 알슈테트, 장어하우젠(Sangerhausen), 슈톨베르크(Stolberg), 만스펠트와 슈바르츠부르크(Schwarzburg) 백작영토 등에서 반군들은 프랑켄하우젠 군대를 형성하려고 도시로 모였다. 그들이 채택한 강령은 복음적 설교를 방해하지 말 것, 목재·물·목초지 용익권의 자유로운 허용, 귀족의 성을 파괴하고 재산을 노획할 것, 모든 귀족의 작위가 포기될 것, 세속 권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반란군의 동맹에 평민으로 결합할 것, 영주가 성서의 가르침을 존중하면 복직될 것 등이다.⁸⁰⁾ 이들 요구들은 뮌쩌와 동료들의 급진적 영향을 드러냈다고 받아들여졌다. 사실 조항들은 여러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 당시 튀링엔 반란군에 널리 유포된 앞의 두 개는 슈바벤 <12개조>를 반향하는 듯하며, 맨 뒤의 두 개는 1525년 중반 뮌쩌의 사고를 잘 반영한다.⁸¹⁾

76) Franz, *Der Deutsche Bauernkrieg*, p.260.

77) 포로로 잡힌 메르스레벤(Merxleben) 출신 농민의 증언으로 뮌쩌의 존재는 입증되었다. *MSB*, p.457.

78) Bensing, *Müntzer*, p.65.

79) *AGBM II*, p.936. 벤징은 뮌쩌가 아이히스펠트로 출정의 지도자였다고 주장했다. Bensing, *Müntzer*, pp.113-15. Elliger, *Müntzer*, p.709와 주 61에서 뮌쩌가 총군 목사였다고 하며 벤징의 주장을 반박한다.

80) 원래 조항은 남아있지 않고 슈바르츠부르크 백작 귄터(Günther)가 1525년 5월 2·3일 반란군 진영에 출두했을 때 제출한 요구에서 재구성되었다. 또 짜이스가 크리스토프 마인하르트(Christoph Meinhart)에게 5월 5일 보고한데서 보인다. *QGBK*, pp.51 1-13.

뮌쩌와 뮌쩌의 동맹이 튀링엔 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은 어떠했던가. 뮌징에 의하면, 뮌쩌의 프로그램은 초기 프롤레타리아그룹의 요구를 넘어선 것이다. 실제 그들은 현재의 당면한 이익을 위해 싸우지 장래의 이 예언자적 조망을 공유하지 못했다.⁸²⁾ 그러므로 뮌쩌의 프로그램이야말로 전(全) 독일 반란에서 중심되고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⁸³⁾ 이는 세 가지 요구로 대별된다. 첫째, “만물은 공유이다”(omnia sunt communia). 둘째, 정치권력은 평민에게 주어어야 한다. 셋째, 겁에 호소하지 않고 새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뮌징이 볼 때, 세째 주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뮌쩌는 진정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⁸⁴⁾ 독일 농민전쟁은 “미성숙한 객관적·주관적 조건”(die unausgereiften objektiven und subjektiven Bedingungen)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했다. 뮌쩌는 이를 두고 민중의 이기주의 즉 인간의 주관적 부패의 결과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뮌징이 볼 때 뮌쩌는 종교적 눈으로만 보았다. 종교는 프랑켄하우젠에서 부적합했다. 뮌쩌의 갑옷에서 종교는 비극적 흠이었다. 민중들의 한계를 파악한 뮌징의 설명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뮌쩌의 첫째 주장은 실제 투쟁에서 민중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소하게 취급되었다. 둘째는 농민들이 동맹에 결합하려한 제후들과 타협함으로써 말미암아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뮌징의 이러한 설명은 뮌쩌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다. 뮌쩌가 1525년 5월 13일 에어푸르트 민중에게 쓴 서신에서 “사악하고 잔인한 폭군과 싸우고, 전체정으로부터의 자유”⁸⁵⁾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대중연합을 시도한 그의 노력은,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중부독일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무시한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두었기에 실패한 면도 있다. 뮌쩌는 종말론적인 이상을 농민과 도시민 및 광부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심을 능가하고 화합시키는 실제적인 정치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않았다. 즉 그는 결코 사회이론가가 아니었다.⁸⁶⁾ 그의 동맹은 복음의 방어를 위한 외형적 연합에 지나지 않았다. 교권반대를 통한 폭력 행사는 급진적·종교적 신념에서 나왔지 혁명적·정치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공유적이다”라는 주장은 고문하의 산물

81) 포로로 잡힌 메를스레벤(Merxleben) 출신 농민의 진술이다. *MSB*, p.457.

82) Bensing, *Müntzer*, p.107

83) *Ibid.*, p.135.

84) 뮌징은 혁명운동에서 뮌쩌가 공산주의적 이념을 내걸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주아지를 소외시킨 책임이 있다는 맑스주의 동료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Ibid.*, p.140.

85) *MSB*, p.471.

86) Rupp, *Patterns of Reformation*, p.302.

임을 유의해야 한다.⁸⁷⁾ 농민들 속에서 이 요구는 영주권의 폐기보다 토지용익권과 공동소유권을 요구한 상부 슈바벤 농민의 <12개조>에서 축약되어 있다.⁸⁸⁾

튀링겐 농민전쟁 중 뮌저의 지지자는 과연 누구였던가. 뮌저를 실제 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 하층계급이었다. 물론 알슈테트와 장어하우젠의 농민과 도시민들은 뮌저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조차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각기 다른 소농민 공동체에 불과했다. 대조적으로 자기 소유토지를 가진 뮐하우젠 농민들은 뮌저에 대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이 적대감이 1524년 9월 위기 이후 완화되었을지라도 '영원한 동맹'이 주변마을에서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 튀링겐 도처에서 뮌저의 현신된 지지자들은 농촌보다는 주로 바카(Vacha), 랑엔잘짜, 아이제나하(Eisenach) 같은 도시에 기초를 두었다.

작센·튀링겐 농민전쟁 진행 중에 뮌저의 추종자는 확대되었고 농민은 도시의 동맹과 뮐하우젠 대중운동으로부터 전략적 지지를 구했다. 그러나 동맹이 이들 공동체에게서 진정한 지지를 얻었는지는 의문이다. 동맹에 가입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뮌저파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추종하여 연대했거나 농민전쟁 공동의 목적과 부합되어 가입했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가입했을 가능성도 크다.⁸⁹⁾ 예를 들면 뮌저파의 원리에 의거하여 도시주민과 신성한 동맹을 체결한 장어하우젠 농민의 행동과 프랑켄하우젠 군대에 1500명을 파견한 일련의 행동은 확실히 뮌저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것이 된다.⁹⁰⁾ 그러나 이들이 동맹의 목적에 동의하였는 지는 의문이다. 한 예로 5월 3일 장어하우젠 지역에서 2,000명의 주민은 상슈바벤의 <12개조>에 스며있던 요구를 시의회에 강요하였고 관리들은 여기에 동의했다. 다시 말해 장어하우젠 농민은 뮌저의 동맹의 요구보다 <12개조>를 선호했다. 하지만 장어하우젠 관리들은 <12개조>가 슈바벤 지역 농민의 불평에 근거한 요구이지 자기 지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에 뮌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요구는 뮌저가 생각한 동맹의 개념과는 거의 무관했다.⁹¹⁾ 그것도 제후들이 장어하우젠에

87) MSB, p.548.

88) FDBK, pp.26~31.

89) 이런 구별에 대해서는 Tom Scott, "Reformation and peasant war in Waldshut and environs: A structural analysis," *Archiv für Reformationgeschichte* 70 (1979) p.166f; Idem, "The Peasant's War: a historiographical review," *Historical Journal* 22 (1979), p.957f를 참조.

90) AGBM II, p.228.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자 자구책에서 뮌쩌의 동맹을 택한 것이었다.

뮌쩌의 동맹에서 농민의 지지가 미약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결정적 순간에 도시민들의 지지도 약화되었다. 뮐하우젠의 주력 부대가 후방에 남기로 한 파이프의 결정은 뮌쩌와의 불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란의 사령부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전술의 일환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⁹²⁾ 더욱 분명한 것은 맑스주의 사가들이 전통적으로 뮌쩌 당파의 혁명적 선봉⁹³⁾으로 간주했던 1524년 알슈테트 동맹에서 중요했던 만스펠트 광부들은 최종 순간에 그를 저버렸다. 프랑켄하우젠에서 기껏 300명이 그를 지지했을 따름이고 보면 도시에서의 그의 대중운동도 실패했다. 5월 초 그들이 알브레히트 공작에게 했던 보장과 반대로 북부 튀링엔 교회와 세속영지를 공격하는데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광부들만이 뮌쩌가 프랑켄하우젠에 도착한 후에 왔다. 초기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의 그들의 잠재력은 아주 과장되었다. 스캇은 뮐하우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1525년의 혁명'은 파당의 분열로 인해 '평민의 혁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블라클레를 비판한다.⁹⁴⁾

요컨대 도시민과 농민 및 광부들을 위으려 했던 뮌쩌의 동맹은 그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뮌쩌의 열렬한 수사(修辭)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⁹⁵⁾ 전체 튀링엔 농민전쟁의 실패는 평민들의 분열에 기인하였다. 더군다나 뮌쩌와 뮌쩌의 동맹은 혁명의 중추는 아니었다.

IV. 맺 음 말

본고는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의 성격과 뮌쩌가 뮐하우젠에서 종교개혁을

91) 이것이 유일한 예는 아니다. 4월 24일에 슈바르츠부르크 농민의 '복음적 형제의 동맹'은 <12개조>를 채택하도록 도시 블라켄부르크(Blankenburg)에 강요했다. *QGBT*, p.504.

92) 농민전쟁 진압 후 반란군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파이프의 동생인 게오르크 슈베르크 페거(Georg Schwertfeger)는 뮌쩌와 그의 형의 계획이 일치했다고 진술했다. *AGBM II*, p.753. 참조 ; *Bensing, Müntzer*, 81.

93) *Ibid.*

94) Scott, *Thomas Müntzer*, pp.117~125.

95) *QGBT*, pp.105~107.

어떻게 실천하였으며 농민전쟁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뮐하우젠 종교개혁 운동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의회와 교관의 대립에서 시작된 제1차 개혁은 파이퍼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시의회와 권한을 공유하는 파이퍼를 지지한 온건 중간 시민계층은 1523년 승리를 획득하여 '8인 위원회'를 통로로 자신들의 몫과 성직자의 폐습개혁을 요구하였다. 제2차 개혁은 1524년 9월까지 개혁세력의 보수화에 반발한 평민세력이 파이퍼와 뮌저를 영입하여 이루어졌고, 제3차 개혁은 양인이 귀환한 후 정치권의 전면적 개혁으로까지 나아갔다. 본고를 통해 볼 때 파이퍼는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였다. 물론 그의 입장이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온건파로부터의 추방과 그의 지지자가 하층세력이었다는 것은 그가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을 시도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파이퍼를 정치꾼으로 뮌저를 종교인으로 보는 것과, 파이퍼를 온건파의 대표로 뮌저를 급진파의 대표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한편 토마스 뮌저의 종교개혁 정신은 종교적 혁명의 이상으로서, 그러나 단순한 이상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현실화하려 했다는 점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알슈타트에서 조직한 뮌저의 동맹은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불신자들을 막아 종교개혁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것이 정치권력의 반대로 좌절되었을지라도 뮌저의 이상은 변하지 않았다. 파이퍼를 통해 뮐하우젠이라는 새로운 시험무대를 얻게 되자 뮌저는 그곳의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서 1524년 9월 동맹을 재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에는 대중들을 결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시의회와 대중들의 반대로 추방되었다. 이런 일련의 실패를 경험한 후 1525년 2월 귀환한 이래 뮌저는 뮐하우젠에서 민중 종교개혁의 옹호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것은 민중 스스로의 열망과 관심을 구체화하여 수행하는 대중 운동을 통한 종교개혁이다. 이 열매가 '영원한 시의회'였고 '영원한 동맹'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지듯 뮌저는 '영원한 시의회'의 수반이 아니었다. 더구나 '영원한 시의회'는 파이퍼와 뮌저의 추종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뮐하우젠의 공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계층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원한 시의회'는 뮌저의 '영원한 동맹'의 집행 수족도, 두 설교자의 도구도 아니었다. 사실 뮌저는 뮐하우젠 시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 평민들의 지지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농민전쟁 때에도 시민들의 반발로 뮌쩌의 출정 요구가 거부된 것은 단적으로 이를 반영한다. 그렇더라도 빈민층 위주의 '영원한 동맹'에 정신적·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의 지원은 가능했다.

'영원한 동맹'은 1525년 4월 농민전쟁의 급류를 타고서 이전의 알슈테트 동맹과 달리 '불신자'들을 추방하고 나아가 진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무장하여 방어적 성격을 넘어 공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동맹의 확고한 성격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뮌쩌는 '불신자의 파괴자'(eyn verstorer der ungläubigen)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위해 싸웠다. 다만 독일의 정치상황 속에서 그 활동 방식이 변화할 따름이었다. 동맹은 맑스주의적 의미의 혁명을 위한 중추세력이 아니었다.

튀링엔 반란을 주도한 이후 뮌쩌 개혁의 성공여부는 민중의 광범한 사회·경제·정치적 요구를 그가 얼마나 신속히 수용하는가에 달렸었다. 그러나 분명히 뮌쩌는 이를 거부했다. 뮌쩌의 입장에서는 '진실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취란 모든 육체의 세속적 욕망을 떨리함에 있었다. 알슈테트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평민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뮌쩌의 영향력은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농민전쟁 출정 순간에도 튀링엔 공동체에 필사적으로 도움을 호소했지만 혁명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시민의 일부 계층, 일부 농민 등의 지지를 받았을 따름이었다. 그러기에 뮌쩌의 '민중 종교개혁'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양자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상면에서 찾아야 했다. '편협하고 소심한 반란군'을 비난함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문제는 뮌쩌의 이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자들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평민을 오해한 것은 바로 뮌쩌였다.⁹⁶⁾ 농민의 요구는 상실된 농민의 권리 회복이었고, 뮌쩌의 개혁은 에라스무스와 재침레파 일파인 스위스 형제단의 평화주의와는 달리 무력을 써서라도 교회를 정화하는 데 있었다. 그 과정에서 뮌쩌는 분명 억압받는 자의 권리의 회복을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령의 내적 말씀'에 순종하여 전제정의 폐지 등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96) G. Maron, "Thomas Müntzer als Theologe des Gerichts. Das 'Urteil' ein Schlüsselbegriff seines Denkens," in Frisen and Goertz, *Thomas Müntzer*, p.366.

뮐하우젠 종교개혁운동의 한계는 뮌쩌가 생각한 동맹의 정체성과 실제 '영원한 동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생각한 동맹의 정체성이 사뭇 달랐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시민투쟁이 온전히 결합할 수 없었다. 또 튀링엔 농민전쟁의 한계 역시 반란군대나 뮌쩌 양자가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통일 전선을 펴지 못한 데 있었다. 반란군들에게 뮌쩌의 종교 이데올로기는 조직된 반란을 위한 틀만을 제공한 셈이었다. "사회혁명으로서의 종교개혁은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실패했다"⁹⁷⁾라는 맑스주의자의 관점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옳다.

종교개혁과 정치 개혁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뮌쩌는 종교가 갖는 추상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진실한 신앙은 현실 개혁 즉 삶의 양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뮌쩌의 종교 의식은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독일 상황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정치적인 프로그램을 내걸지 않음으로 인해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97) 벤징을 포함한 맑스주의자들은 당시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진정한 계급의식을 갖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보았다(Bensing, Müntzer, p.251).